

高麗時代 釜山地域의 對外交流

이 중 봉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차 례

I. 머리말

II. 대외관계의 전개

1. 대송관계

2. 대일관계

III. 대외교류의 발달과 부산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가 건국된 10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격동의 시기였다. 중국은 당말 오대의 혼란기가 송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대륙의 북쪽에서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남쪽 일본에서는 고대사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고려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송·거란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고려하여 대외관계를 형성하였다.

고려는 이러한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와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인 교류를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따라서 고려는 이들 국가들과 어떤 대외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대외관계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교류를 전개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는 일찍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고려시대 대외관계사의 연구는 대송관계, 대거란·여진관계 등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것과 대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나눌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의 글들에 의해 시기별 연구의 논점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고된다.¹⁾ 후자에 대해서도 몇몇의 글들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²⁾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고려와 對宋關係³⁾·對日關係⁴⁾를 중심으로 한 연구, 고려와 송과의 경

1) 김순자, <고려와 동아시아> 『한국역사입문②』, 풀빛, 1994; 박종기,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한국사』 6, 한길사, 1994; 김순자, <고려전기 대중국관계사 연구의 현황>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2)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 출판국, 1996; 이정희, <高麗後期對日貿易史 연구동향과 과제> 『白楊史學』 15, 1998; 李益柱, <한국의 고려·일본관계사 연구동향>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0.

3) 대중국관계사는 송·거란·여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글의 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대송관계를 중심한 연구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金庠基, <고려와 송·금과의 관계> 『東方史論叢』, 서울대 출판부, 1974; 全海宗, <대송외교의 성격>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朴龍雲, <高麗·宋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 『韓國學報』 81·82, 1995).

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⁵⁾ 고려와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⁶⁾ 국가간의 대외관계의 전개가 그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연구,⁷⁾ 고려 후기 등장한 왜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⁸⁾ 그리고 최근에는 고려·중국·일본 등을 동아시아사의 시각에서 各國 간의 교역·해적·교역로와 교역망·화폐의 유통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려는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⁹⁾ 이러한 연구는 고려의 대외관계사를 해명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각국 연구자의 인식의 차이와 자료 이용상의 문제 등의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아울러 모든 대외관계사의 연구를 국가대 국가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즉 고려시대 존

-
- 4) 靑山公亮, 『日麗交涉史の研究』, 明治大 出版部, 1965 ;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상)』, 1965 ; 南基鶴, <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 『日本歷史研究』 11, 2000.
 - 5) 金岸基, <麗宋貿易小考> 『東方文化交流史論考』, 을유문화사, 1984 ; 김상기, <고려전기 해상활동과 문물의 교류> 『東方史論叢』, 1974 ;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 14, 1993.
 - 6) 靑山公亮, 『앞의 책』, 1965 ; 中村榮孝, 『앞의 책』, 1965 ; 森克己, 『新頂日宋貿易の研究』, 『續々日宋貿易の研究』, 『續々日宋貿易の研究』, 1975 ; 羅鐘宇, <고려전기의 조일관계> 『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 1996 ;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 14, 1992 ; 李頌, <中世前期の日本と高麗-進奉關係を中心として-> 『倭寇と日麗關係史』, 1999 ; 池田溫, <前近代における紙の國際流通> 『東アジア文化交流史』, 2002.
 - 7) 具山祐,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 78, 1992 ; 朴宗基, <高麗中期 對外政策의 變化에 대하여-宣宗代를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16, 1993 ; 朴宗基,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역사와 현실』 30, 1998 ; 안병우,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역사와 현실』 43, 2003.
 - 8) 왜구는 고려시대 대일관계사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과 왜구가 부합되지 않아 생략하였다.
 - 9) 李正守, <中世 日本에서의 高麗銅錢의 流通-日本の 出土備蓄錢을 중심으로-> 『韓國中世史研究』 12, 2002 ; 金榮濟, <10~13世紀 宋錢과 東아시아의 貨幣經濟-특히 宋錢의 高麗流入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28, 2004 ; 金澈雄, <高麗와 宋의 海上交易路와 交易港> 『中國史研究』 28, 2004 ; 朴承範, <9~10世紀 東아시아 地域의 交易-新羅末·高麗初 韓半島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29, 2004.

재하였던 각 지역 및 지역의 정치집단이 대외교류에 어떻게 참여하였고, 그 양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즉 대외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각 지역이 대외교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먼저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사를 대송·대일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의 대송·대일관계는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대거란·여진관계보다 부산지역에 존재하였던 세력이 대외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외관계의 전개 속에서 부산지역의 어떤 세력이 대외교류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당시의 상업의 발달과 연관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본 고에서는 고려시대의 대외교류를 고려의 전시기를 대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12세기 말·13세기 초까지만 한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세기 말 이후는 고려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큰 축이었던 대송관계가 거의 단절되었고, 13세기 초인 고종 10년(1223) 이후는¹⁰⁾ 왜구의 등장과 대몽항쟁 등으로 대일관계가 굴절되었기 때문이다.

Ⅱ. 대외관계의 전개

1. 대송관계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즉위 초부터 무엇보다도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변국인 중국과의 대외관계에도 힘썼

10) 『高麗史』 권22, 高宗 10年 5月 甲子條.

다. 이러한 대외관계에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태조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후의 왕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려는 왜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중시하였고, 그러한 대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무렵의 중국은 5대 10국의 혼란기였다. 고려의 대외관계는 이들 국가와 대외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태조 2년 佐良尉 金立奇를 오월에 파견하였고,¹¹⁾ 태조 6년(923) 후량의 사절로 돌아온 福府卿 尹質이 오백나한상을 가지고 온 것을¹²⁾ 비롯하여 태조 20년 王規와 邢順을 후진에 보내어 高祖 石敬瑭의 등극을 축하하였고,¹³⁾ 태조 24년에도 大相 王申一을 후진에 보내는 등¹⁴⁾ 고려 태조는 재위 26년 동안 중국에 12회에 걸쳐 사절을 파견하였다.¹⁵⁾ 태조의 對오대관계는 혜종·정종·광종대에도 지속되었고, 광종 4년(953)에는 후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¹⁶⁾ 이처럼 고려가 대중국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그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송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자, 고려는 광종 13년(962) 송에 광평시랑 李興祐를 파견하여¹⁷⁾ 송과의 대외관계를 가진 이후 명종 3년(1173)까지 지속하였다. 고려와 송과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3시기로 구분하였는데,¹⁸⁾ 1기는 광종 13년(962)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한 시점에서 거란의 제1차 침략 이후인 성종

11) 『資治通鑑』 권270, 後梁紀 均王 貞明 5年 7月條.

12) 『高麗史』 권1, 太祖 6年 6月條.

13) 『高麗史』 권2, 太祖 20年 5月條.

14) 『高麗史』 권2, 太祖 24年 4月條.

15) 李基白, <高麗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관계> 『韓國文化院論叢』 1, 1959.

16) 『高麗史』 권2, 光宗 4年條.

17) 『高麗史』 권2, 光宗 13年條.

18) 全海宗, <高麗와 宋과의 關係> 『東洋學』 7, 1977; 朴龍雲, <고려·宋 交聘의 目的과 使節에 對한 考察(上·下)> 『韓國學報』 81·82, 1995; 김성규, <高麗 前期의 麗宋關係> 『國史館論叢』 92, 2000.

13년(994)까지로 하였고, 2기는 양국의 관계가 재개되는 문종 25년(1071)에서 북송이 멸망하는 고려 인종 4년(1126)까지 이고, 3기는 남송이 건국되는 1127년에서 남송에서 고려에 마지막 사신을 파견한 명종 3년(1173)까지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양국의 사신이 오고 간 공적인 점만 부각시켜 실제 이 시기에만 대외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대외관계란 것은 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적인 대외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도 다음의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국의 사신이 파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양국의 사신의 왕래와 함께, <표 1>에서 처럼 상인들에 의한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의 상인의 상업활동은 양국의 대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국의 사신이 파견되지 않은 시기에는 상인들을 통해 양국의 서신이 교환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고려와 송의 대외관계는 1기의 마지막인 성종 13년 이후부터 2기의 시작인 문종 24년 이전까지를 한 시기로 나누어 4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대외관계의 전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기는 광종 13년 고려에서 송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양국의 대외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성종 13년까지이다. 이에 따라 광종 14년에는 송의 연호를 사용하였고,¹⁹⁾ 고려 국왕들은 광종 23년, 경종 원년(976)과 4년, 성종 2년(979)·4년·7년·9년·11년에 각각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²⁰⁾ 따라서 1기의 고려와 송의 대외관계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대외관계는 성종 4년(985) 송이 고려에 사신 監察御使 韓國華를 보내어 거란의 침략에 필요한 군사외의 파견을 요청하였지만²¹⁾ 고려가 사실상 송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성종 13년에

19) 『高麗史』 권2, 光宗 14년 12月條.

20) 沈載錫, <고려와 五代·宋의 책봉관계> 『高麗國王 冊封 研究』, 해안, 2002.

21) 『高麗史』 권3, 成宗 4年 5月條.

는 거란의 제 1차 침략을 받은 이후 거란을 보복하기 위해 고려가 사신 元郁를 송에 보내어 군사의 파견을 요청하였지만 이번에는 송이 거부함으로써,²²⁾ 양국의 공적인 대외관계는 단절되었다. 1기의 고려와 송의 대외관계는 양국이 거란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정치 군사적 필요성을 서로 거부함으로써 공적인 관계가 청산되었다. 따라서 1기의 고려의 대송관계는 뒤의 <표 2>의 사신의 왕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문화적 목적하에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가졌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1기의 고려와 송의 상인에 의한 대외교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고려사』 최승로전에 의하면 ‘지금은 병례를 위한 사신만이 아니라, 무역으로 인하여 사자의 왕래가 빈번하오니, 중국의 천시를 받을까 두렵고, 또한 왕래하다가 배가 난파되어 목숨을 잃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조빙할 때의 사신편에 무역을 겸하게 하고 기타 때아닌 때에는 일체 금지하십시오.’²³⁾란 것은 공무역 외에 사무역이 발달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기는 하지만 후당 청태 원년(934)에는 고려인 70여명이 등주에서 교역하였고, 그뒤인 10월에는 청주에서도 교역을 실시하고 있었다.²⁴⁾ 따라서 1기에도 양국의 상인에 의한 대외교류는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기는 성종 13년 이후 양국의 공식적 외교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문종 24년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고려가 목종 3년(咸平 3년, 1000) 吏部侍郎 趙之遴을 송에 파견하여 거란의 견제로 송과의 통교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전한다든지,²⁵⁾ 함평 6년에는 戶部郎中 李宣古를 송에 파견하여 거란의 고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 송의 군사를 거란의 국경에 주둔시켜 줄 것을 요청

22) 『高麗史』 권3, 成宗 13年 6月條.

23) 『高麗史』 권93, 崔承老傳.

24)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44 互市 後唐 清泰 元年條.

25)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咸平 3年條.

하는²⁶⁾ 것처럼 고려는 송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외교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2기에서도 고려의 대송관계는 경제·문화적 관계를 중시하였겠지만 정치·군사적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宋史』 고려전에 의하면 고려의 관리가 여러차례 파견되어 공물을 바치거나,²⁷⁾ 進奉事 崔元信을 파견하기도 하였다.²⁸⁾ 아울러 송의 사람들이 와서 고려에 방물을 바치는 사례도 있었다.²⁹⁾ 따라서 2기에는 고려와 송은 양국의 공적인 대외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국의 필요에 의한 사신의 파견과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양국의 대외교류는 양국의 상인들의 왕래를 통해 알 수 있다. 뒤의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려에 온 송 상인의 회수는 공식적인 대외관계가 이루어졌던 시기 못지 않게 활발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2기는 공적인 대외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국의 사신이 파견되고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려와 송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상인에 의한 상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표-1> 송상의 래향 수³⁰⁾

시 기	출신지역	인 원	진헌물종	비 고
현종 3년	南楚(楚人)	陸世寧 등	토물	()는 고려사
현종 8년	泉州	任仁德 등 40인	방물	
현종 9년	江南	王肅子 등 24인	방물	
현종 10년	泉州	陳文軌 등 100인	토물	
현종 10년	福州	盧瑄 등 백여인	香藥	

26)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咸平 6年條.
 27)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咸平 6年條 ; 『동』 大中 祥符 7年條 ; 大中 祥符 8年 ; 天禧 元年條 ; 天禧 5年條.
 28)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天禧 3年 9월條.
 29) 『高麗史』 권4, 顯宗 8年 7月 辛丑條.
 30) <표-1>은 <표-3>의 송상의 래향 건수 중에서 2기의 상황만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임.

시 기	출신지역	인 원	진헌물종	비 고
현종 11년	泉州	懷贇 등	방물	
현종 13년	福州	陳象中 등	토물	
현종 13년	廣南	陳文遂 등	향약	
현종 17년	廣南	李文通 등 3인	방물	
현종 18년	江南	李文通 등	서책	
현종 19년	泉州	李鄴 30여인	방물	
현종 20년	廣南	蔣文實 등 80인	토물	
현종 21년	泉州	盧遵 등	방물	
덕종 즉위년	台州	商客 陳惟 등 64인	방물	
덕종 2년	泉州	商都綱 林諷 등 55인	토물	
정종 즉위년	商客		토물	팔관회
정종 2년	宋商	陳諒 등 67인	토물	
정종 2년	宋商		토물	팔관회
정종 3년	宋商	朱如玉 등 20인		
정종 3년	宋商	林贇 등	방물	
정종 4년	明州·台州	陳亮·陳維績 등 147인	방물	
정종 5년	宋商	惟積 등 50인	방물	
정종 7년	宋商	王諾 등	방물	
정종 11년	泉州	林禧 등	토물	
문종 원년	宋商	林機 등	토물	
문종 3년	台州(宋商)	徐贇 등 71인(133인)	방물(珍寶)	()는 고려사절요
문종 3년	泉州	王易從 등 62인	珍寶	
문종 6년	宋商	林興 등 35인	토물	
문종 6년	宋商	趙受 등 26인(66인)	토물	()는 고려사절요
문종 8년	宋商	蕭宗明 등 40인	토물	
문종 8년	宋商	趙受 등 69인	象牙 등	
문종 9년	宋商	黃助 등 48인		
문종 9년		都綱 黃沂狀		
문종 10년	宋商	黃拯 등 29인	토물	
문종 11년	宋商	葉德寵 등 25인	토물	
문종 11년	宋商	郭滿 등 33인	토물	
문종 12년	宋商	黃文景 등	토물	
문종 13년	宋商	蕭宗明		

시 기	출신지역	인 원	진헌물종	비 고
문종 13년	宋商	傅南 등	토물	
문종 14년	宋商	黃助 등 38인	토물	
문종 14년	宋商	徐意 등 39인	토물	
문종 14년	宋商	黃元載 등49인	토물	
문종 15년	宋商	郭滿 등	토물	
문종 17년	宋商	郭滿 등	토물	
문종 17년	宋商	林寧 黃文景 등	토물	
문종 18년	宋商	陳鞏 등	토물	
문종 18년	宋商	林寧 등	珍寶	
문종 19년	宋商	郭滿 黃宗 등	토물	
문종 21년	宋人	黃慎 洪萬		
문종 22년	宋人	黃慎		
문종 22년	宋商	朴寧	토물	
문종 23년	宋商	楊從盛 등	토물	
문종 23년	宋商	王寧 등	토물	
문종 24년	宋人	黃慎 등		

셋째, 3기는 양국의 대외관계가 재개되는 문종 25년(1071)부터 북송이 멸망하는 고려 인종 4년(1126)까지이다. 고려와 송과의 대외관계의 재개에 대해서는 다음의 『송사』 자료가 주목된다.

<가>

- A) 熙寧二年 其國禮賓省移牒福建轉運使羅拯云 本朝商人黃慎洪萬來稱轉運使密旨 令招接通好 奉國王旨意 形于部述 當國僻居暘谷 邈戀天朝 頃從祖禰以來 素願梯航相繼 藪爾平壤 邇于大遼 附之則爲睦鄰 疎之則爲勅敵 … 今以公狀附眞萬西還 俟得報音 卽備禮朝貢(『宋史』 권487, 外國3 高麗傳)
- B) 三年 拯以聞 朝廷議者 亦謂可結之 以謀契丹 神宗許焉 命拯諭以供擬 腆厚之意 徽遂遣民官侍郎金悌等百十人來 詔待之 如夏國事 往時高麗人往反皆自登州(『宋史』 권487, 外國3 高麗傳)
- C) 七年 遣其臣金良鑑來言 欲遠契丹 乞改塗由明州詣闕 從之(『宋史』 권487, 外國3 高麗傳)

자료 A)는 희령 2년(1069) 즉 문종 23년에 고려의 예빈성에서는 복건 전운사 羅拯에게 보낸 첩에 전운사가 왕의 밀지를 받았는데 ‘고려와 접촉하여 우호관계를 맺게 하라’는 내용의 밀지가 상인 黃愼에 의해 고려에 전해지므로,³¹⁾ 즉 고려에서도 天朝를 연모하여 항상 사신을 왕래하기를 바랐고, 앞으로도 예를 갖추어 조공할 것임을 전하고 있다. 고려가 송을 흠모하였던 것은 문화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정치·군사적인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B)는 희령 3년 송의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거란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려와 우호를 맺어야 한다’고 하니, 송의 神宗이 동의하였고, 고려의 사신이 송에 파견되어 오자³²⁾ 이들을 夏國의 사신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자료 C)는 희령 7년(1074) 고려에서 송을 왕래할 때 이전의 登州로 왕래하던 길을 버리고 거란을 멀리하기 위해 남쪽의 明州를 경유하여 곁에 도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고려와 송은 문종 23년(1069)부터 공식적 대외관계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에 따라 『高麗史』와 『宋史』등을 고려할 때 문종 25년에 양국의 정치·군사적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적인 대외관계가 형성되었고, 거란을 고려하여 사신의 왕래항로도 변경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³³⁾

이러한 양국의 대외관계를 기반으로 문종 32년(1078)에는 문종

-
- 31) 송의 왕이 고려와 통교를 시도하라는 서신이 黃愼에 의해 고려에 전해진 것은 『고려사』에 의하면 문종 22년 7월이다.
- 32)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宋史』고려전과는 달리 『高麗史』권8, 文宗 25年 3月 庚寅條 ‘遣民官侍郎金悌奉表禮物如宋’과 『宋史』권15, 本紀15 神宗 4年 5月 丙午條 ‘高麗國來貢’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송사』고려전의 기록처럼 문종 24년에 고려의 사신이 파견되었다기보다는 『송사』본기와 『고려사』의 기록을 고려할 때 문종 25년에 고려의 사신이 송에 파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 33)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는 북중국연안항로, 황해횡단항로, 남중국항로가 있다. 고려와 송의 항로는 국제정세에 따라 황해횡단항로에서 남중국항로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해상교역로와 사행로를 구분하여 해상교역로는 황해횡단로와 남중국항로가 동시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의 증풍을 치료하기 위해 송에 의사의 파견을 요청하였고,³⁴⁾ 이듬해 송의 의사가 파견오기도 하였다.³⁵⁾ 따라서 이 시기의 고려와 송과의 대외관계는 새롭게 재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물론 고려와 송과의 대외관계는 일방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 정치권 내에서 기존 요와의 사대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온존하였고, 송에서도 대고려관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였다.³⁷⁾

3기는 고려의 대송관계가 안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팔관회적 질서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양국의 상인에 의한 상업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음의 <표-3>과 고려의 상인들이 중국에서 상행위를 전개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넷째, 4기는 북송이 멸망하고(1126), 南宋이 건국된(1127) 이후부터 南宋에서 고려에 마지막 사신을 파견한 고려 명종 3년(1173)까지이다. 이 시기 고려는 금의 책봉을 받고 금의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송은 고려에게 請兵과 假道の 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와 송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왕래시켰지만 양국이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송에서는 고려가 송의 사정을 파악하여 금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하여 고려를 의심하여 고려에 사신 파견을 중지시키려고 하거나,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와 금의 내통을 정탐하기도 하였다.³⁸⁾ 따라서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동시에 대외관계를 지속시켰다. 이것은 양국의 관계가 경

34)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元豐 元年條.

35)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元豐 2年條.

36)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의 재개에 대해서는 송은 ‘聯麗制遼策’이라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반하여 고려는 송에 대한 선진문물의 수용의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주목된다.

37) 李範鶴, <蘇軾의 高麗排斥論과 그 背景> 『韓國學論叢』 15, 1992 ; 안병우, <앞의 논문>.

38) 『宋史』 권487, 外國3 高麗 建炎 3年·紹興 6年條.

제적 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고려와 송은 양국의 필요에 의해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지만, 상대국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자국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거부하기도 하였다. 4기의 고려와 송은 공적인 대외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청병과 가도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신의 왕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高麗·宋의 사신 도향 건수³⁹⁾

기	시 대	고려 사신의 도향	송 사신의 도향	비 고
I	광종대(13년 이후)	4	1	北宋代
	경종대	5	3	
	성종대	9	6	
II	목종대	2		
	현종대	7		거란의 침략
	덕종대			
	정종대	1		
	문종대(24년 이전)	0	0	
III	문종대(25년 이후)	5	3	
	순종대			
	선종대	3	2	
	헌종대			
	숙종대	4	1	
	예종대	9	5	
	인종대(26년 이전)	4	4	북송대
IV	인종대(27년 이후)	6	5	南宋代
	의종대	1		
	명종대			

39) 金庠基, <麗宋貿易考> 『東方文化交流史論考』, 乙酉文化社, 1984, 55~56쪽의 <표 1>과 朴龍雲, <앞의 논문>, 193~204쪽 <표-1>을 대조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한편 4기의 고려와 송은 이러한 대외관계 속에서 양국 상인들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는 다음의 <표-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송의 상인들이 의종대를 중심으로 고려에 빈번하게 왔었고, 특히 상인들이 2기와 3기에서는 지역의 출신들이 많았지만 4기에서는 都綱이라는 직책을 가진 상인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고려의 상인들도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송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와 송의 상인들이 고려와 송을 빈번하게 왕래하였다는 것은 양국의 교역이 활발하였음을 암시한다.

<표 3> 왕대별 송 상인의 입국 수⁴⁰⁾

시 대	회수	물 종	지 역
현종대	13	方物, 土物, 香藥, 서책	泉州·福州 등
덕종대	2	方物(1), 土物(1)	台州·泉州
정종대	9	方物(4), 토물(5)	泉州·明州
문종대(24년이전)	30	土物(40), 珍寶(4), 象牙(1)	台州·泉州·宋商·宋人·都綱
문종대(25년 이후)	13	土物(40), 珍寶(4), 象牙(1)	宋商·宋人
선종대	6	土物(5), 華嚴經板(1)	宋商
현종대	5	方物(1), 토물(4)	宋商
숙종대	12	土物(4)	宋商, 明州, 都綱
예종대	5	土物(1), 花木(1), 백곡(1)	宋商, 都綱
인종대	5		宋商, 商客, 都綱
의종대	21	鳥類(2)	都綱(16), 宋商
명종대	3	침향(1), 태평어람(1)	宋商, 都綱

(위의 <표 2>는 『고려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이상에서 살펴볼 때 고려와 송의 대외관계는 4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양국의 대외관계는 서로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40) 송의 상인 입국현황은 『고려사』·『고려사절요』에 광종 13년부터 목종대까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위해 유지되었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관철하기 일정한 노력을 견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는 송에 대해 경제·문화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목적 하에서 양국의 관계를 지속시켰고, 송도 그러한 목적 하에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점이 엿보인다. 그리고 양국의 상인들은 양국의 대외관계가 원만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상대국에서 활발한 상행위를 전개하였다.

2. 대일관계

이런 와중에 고려는 국초부터 일본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고려는 건국이후 일본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를 통해 양국의 대외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고려시대 대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양상은 어떠하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고려의 대일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고려의 대일관계는 내용별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⁴¹⁾ 시기에 따라 대일관계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고려의 대일관계를 몇 단계로 구분한다면 1단계는 고려건국에서 刀伊賊의 일본 침략(현종 10년, 1019)이전까지, 2단계는 도이적 일본 침략이후 금주의 객관이 설치된 시기부터 연평도 순검군에게 일본의 선박이 나포되는 11세기말기까지, 3단계는 11세기 말기부터 왜구의 발발과 몽고의 침략까지, 4단계는 왜구의 성행에서부터 고려 멸망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려는 후삼국 통일 직후부터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한 사실들은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문헌자료에는 태조 20년(937) 고려에서 일본에牒을 보냈음을 기록하고 있다.⁴²⁾ 고려에서 보낸

41) 기존 연구에는 대일관계를 이와 같이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42) 『日本紀略』, 承平 7年 8月 5日條 “左右大臣以下著左仗 開見高麗牒等”.

첩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첩을 놓고 일본의 좌우 대신들이 논의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고려가 외교관계를 갖고자 하였던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⁴³⁾ 한편 광종 23년(972) 9월에는 남원부사 咸吉兢이,⁴⁴⁾ 10월에는 김해부사 李純達⁴⁵⁾ 등이 대마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⁴⁶⁾ 성종 16년(997) 5월에는 고려가 일본에 첩장을 보내었는데, 첩장에 일본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어 고려가 의도한 외교관계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고려의 침략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⁴⁷⁾ 따라서 10세기 고려의 대일관계는 고려에서 적극적으로 대외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던 반면에 일본은 고려의 그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10C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즉 중국에서 당의 멸망에 이은 5대 10국의 흥망, 거란의 건국과 발해의 멸망과 한반도에서의 후삼국의 정립과 고려의 건국이라는 혼란이 일본 국내에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립적인 외교방침을 취했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고려와 일본은 공적인 대외관계에 한계를 드러냈지만, 고려인이 일본에 漂着하거나⁴⁹⁾ 이주를 희망하거나⁵⁰⁾ 일본인이 고려에 귀화하는⁵¹⁾ 등의 부차적 관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광종 25년(974) 10월 고려교역사 藏人所

43) 森克己, <日麗交涉と刀伊賊の來寇> 『朝鮮學報』 37·38, 1966 ; 羅鐘宇, <앞의 논문>.

44) 『日本紀略』 後篇6, 天祿 3年 9月 23日條.

45) 『親信卿記』, 天祿 3年 10月 15日條.

46) 고려의 지방관이 사자로 대마도를 방문한 것은 수호보다는 사적인 교류를 목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李頴, <院政期の日本・高麗交流に關する一考察> 『앞의 책』).

47) 『小右記』, 長徳 3年 6月 12日條.

48) 石上英一, <日本古代10世紀の外交>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7, 1982.

49) 표류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山内晉次, <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 『歴史科學』 122, 1990).

50) 『百練抄』, 長保 4年 6月 27日條 ; 『權記』, 長保 4年 7月 16日條.

51) 『高麗史』 권3, 穆宗 2年 10月條.

의 出納 國雅가 고려의 교역물인 馬와 葦毛 등을 가지고 일본의 중앙정부에 돌아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⁵²⁾ 것으로 보아 상호교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의 대규모의 상인이 일본에 갔다거나, 일본의 대규모 상인이 고려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0세기 고려의 대일관계는 9세기 이후의 긴장관계를 벗어나 양국이 완전하게 신뢰하는 관계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10세기의 고려의 대일관계는 11세기 초에 이르러 서서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자료가 주목된다.

<나>

- A) 鎭溟船兵都府署張渭男等 獲海賊八艘 賊所掠日本生口男女二百五十九人 遣供驛令鄭子良 押送其國(『高麗史』권4, 顯宗 10年 4月 丙辰)
 B) 其狀云 從高麗國虜人送使來對馬之由申彼嶋解文 仍言上其由 具案内注府解等 明日臨時祭始 一府大事也(『小右記』, 寬仁 3年 9月 4日)

자료 A)는 진명선도부서에서 해적 즉 여진으로부터 일본인 남녀 259명을 구출하여 鄭子良을 파견하여 일본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자료 B)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려의 사신 鄭子良이 피로인 약270명을 이끌고 도착했던 일을 태재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사건은 寬仁 3년(1019) 4월 刀伊賊(여진)이 50척을 거느리고 일본을 습격하고 일본인을 나포하여 여진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고려의 수군에 나포된 것이다.⁵³⁾ 이후 일본에서는 나포된 일본인을 거느리고 온 고려인 정자량 등에게 祿과 位階를 수여하자는 등의 우대법을 논의하였다. 이는 11세기 초에 이르러 경색되어 있던 고려의 대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⁴⁾

52) 『日本紀略』後篇6, 天延 2年 10月 30日條.

53) 『小右記』, 寬仁 3年 4月 17日條.

54) 森克己, <日麗交渉と刀伊賊の來襲> 『朝鮮學報』37·38, 1966에서 도이적의 일본 침략사건 이후 일본은 고려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시켰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현종 20년에는 제주도인 貞一 등 20여 인이 일본에 漂着하였다가 돌아오거나,⁵⁵⁾ 덕종 3년(1034)에는 일본 大隅國에 포착한 고려인과⁵⁶⁾ 정종 2년에도 고려 표류인 講俊 등 11인을⁵⁷⁾ 각각 일본에서 고려로 돌려보내진 일도 있었다.⁵⁸⁾ 11세기 문종대에 이르러서는 현종대의 교-류를 기반으로 문종 2년(1048) 태재부가 新羅曆을 바치거나,⁵⁹⁾ 문종 2년 7월 金州에서 상인을 통해 國牒을 전달하였다.⁶⁰⁾ 력과 첩이 전달된 점을 고려할 때 고려의 대일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종 3년에는 일본의 對馬島官이 파견한 首領 明任이 고려 표류인과 함께 금주에 도착하였고,⁶¹⁾ 문종 5년에는 對馬島에서 사자를 파견하여 고려죄인 3인을 송환하였고,⁶²⁾ 문종 10년에는 日本國使 正上位權隸 藤原·朝臣 賴忠 등 30여인이 金州의 客館에 도착하였다.⁶³⁾ 일본의 사신이 금주의 객관에 머물렀다는 것은 고려가 일본의 사신을 위해 이미 객관을 설치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가 도이적용 격퇴하여 일본의 포로들을 생환한 것과 함께 금주의 객관의 설치는 대일관계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의 대일관계는 선종 10년(1093) 安西都護府의 연평도 순검군에 의해 해적선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배가 拿捕될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다음의 <표>를 통해 할 수 있다.

55) 『高麗史』 권5, 顯宗 20年 7月 乙酉條.

56) 『日本紀略』 후편14, 長元 7年 3月條.

57) 『高麗史』 권6, 靖宗 2年 7月 壬辰條.

58) 漂着이라는 것도 漂流을 가장한 사적인 상업의 경우에 포함된다고 파악하고 있다(山内晋次, <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 『歴史科学』 122, 1990).

59) 『百鍊草』 제4, 永承 3年 5月 2日條.

60) 『百鍊草』 제4, 永承 3年 7月 10日條.

61) 『高麗史』 권7, 文宗 3年 11月 戊午條.

62) 『高麗史』 권7, 文宗 5年 7月 己未條.

63) 『高麗史』 권7, 文宗 10年 10月 己酉條 “日本國使 正上位權隸藤原朝臣賴忠三十人 來館于金州”

<표-4> 11세기 대일관계의 현황64)

일본국의 성분	내 용	시 기	근 거
日本國人 王則貞·宋永年 등 42인	螺細 외에 12가지 물건의 진상	문종 27년(1073)	『고려사』
壹岐島 勾當官 藤井安國 등 33인	방물을 헌상	문종 27년(1073)	『고려사』
日本國	禮物·名馬를 헌상	문종 27년(1073)	『고려사』
日本國 船頭 中利 등 39인	토물을 진상	문종 28년(1074)	『고려사』
日本 商人 大江 등 18인	토물을 진상	문종 29년(1075)	『고려사』
日本人 朝元·時經 등 12인	토물을 진상	문종 29년(1075)	『고려사』
日本商人 59인	고려에 도착	문종 29년(1075)	『고려사』
日本國 僧俗 25인	불상을 헌상	문종 30년(1076)	『고려사』
日本 商客 藤原	法螺를 흥왕사에 기진	문종 33년(1079)	『고려사』
日本國 薩摩州의 使	방물을 헌상	문종 34년(1080)	『고려사』
對馬島의 使	방물을 헌상	문종 36년(1082)	『고려사』
日本國 筑前州의 商客 信通	水銀을 헌상	선종 1년(1084)	『고려사』
對馬島 勾當官의 使	감골을 진상	선종 2년(1085)	『고려사』
對馬島 勾當官의 使	방물을 진상	선종 3년(1086)	『고려사』
日本商 重元·親宗 등 32인	방물을 진상	선종 4년(1087)	『고려사』
對馬島의 元平 등 48인	수은·진주·보도·우마 등을 헌상	선종 4년(1087)	『고려사』
太宰府의 商客	수은·진주·궁전·도검 등을 진상	선종 6년(1089)	『고려사』

위의 <표-4>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려에 건너온 일본인들 중에는 商人(商客) 외에도 日本國使·薩摩州使·對馬島勾當官·對馬島使 등을 칭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고려의 대일관계가 현종 10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었고, 양국의 관계가 일정한 궤도에 올

64) 田島公, <高麗との關係> 『古文書の語る日本史』, 1991, 288~296쪽의 <平安時代を中心として日本との交渉・交流>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랐음을 의미한다.⁶⁵⁾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고려의 사신·상인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여러 활동을 전개한 자료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의 고려의 대일관계는 고려가 일본에 의사파견을 요청한 자료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다>

高麗牒

高麗國禮賓省牒 大日本國太宰府

當省伏奉聖旨 訪問貴國有能理療風疾醫人 今回商客王則貞廻皈故鄉 回便通牒 及於王則貞處說示風疾緣由 請彼處 選擇上等醫人 於來年早春發送到來 理療風疾 若見功效 定不經酬者 今先送 花綿及大綾中綾各一十段 麝香一十臈 分附王則貞齎持 將去知大宰府官員處 且充信儀 到者受領 … 己未年十一月日牒(『朝野群載』권20, 承曆 4年 2月 5日)

위의 자료는 예빈성에서 聖旨를 받들어 일본에 우수한 의사의 파견을 요청하고, 풍질의 치료에 효능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가버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설명한 것처럼 고려는 송에 대해 의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와 송과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고려가 일본에 의사파견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양국의 관계도 우호적 관계로 변한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의사파견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려의 요청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거부함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칙장에서는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되었다. 성지라는 문구와 함께 연호가 사용되지 않고 干支만이 사용된 점, 치료에 효능이 있다면 보수를 준다

65) 고려와 일본과의 관계는 고려와 일본의 중앙정부와의 관계라기 보다는 고려와 일본의 지방인 구주와의 관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는 것은 상의하달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다.⁶⁶⁾ 이는 고려의 지배 질서가 고유의 영역을 넘어 주변의 제세력에 까지 포괄하고자 한 자세로 파악할 수 있다.⁶⁷⁾ 즉 고려는 일본을 고려의 지배질서에 포괄시키려는 의식을 11세기에 가졌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1세기 말에는 고려의 대일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사건, 즉 연평도 순검군에 의해 일본인과 송인이 함께 타고 있던 선박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라>

西海道按察使奏 安西都護府轄下 延平島巡檢軍 捕海船一艘 所載宋人十二人 倭人十九 有弓箭刀劍甲冑并水銀眞珠硫黃法螺等物 必是兩國海賊 共欲侵我邊鄙者也 其兵仗等物 請收納官 所捕海賊 並配嶺外 賞其巡捕軍士 從之(『高麗史』 권10, 宣宗 10年 7月 癸未)

위의 자료는 선종 10년(1093) 安西都護府의 연평도 순검군이 拿捕한 선박에 많은 軍器物과 수은·진주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선종 10년은 앞의 <표 4>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사신과 상인 등의 왕래가 상당히 활발하던 시기이다. 그런데 송인과 일본인이 함께 타고 있던 선박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고려와 일본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선박에 대한 해석은 순수한 무역과⁶⁸⁾ 밀무역선으로 파악하고 있다.⁶⁹⁾ 전자의 입장은 무역선의 나포 이후 고려의 대일관

66) 의사파견요청에 대해서는 고려적인 시각에서 고려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해 하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奧村周司, <醫師要請事件に見る高麗文宗朝の對日姿勢> 『朝鮮學報』 117, 1985).

67) 奧村周司, <高麗における入關會の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68) 고려의 순검군에 의해 나포된 해적선에 대한 해석은 순수한 무역선으로 이해하는 입장(森克己, 『앞의 책』).

69) 일본과 북방의 요를 중심으로 밀무역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있다(李嶺, 『앞의 책』).

계가 경색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⁷⁰⁾ 후자의 입장은 기존의 대일관계는 일송무역과 함께 지속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⁷¹⁾

선종 10년 이후 고려의 대일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2세기에 이르면 11세기의 경우처럼 상인들이 왕래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래 <표-5>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인과 함께 태재부의 사신이 고려에서 편찬한 경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표-5> 12세기 대일관계의 현황⁷²⁾

고려·일본의 성분	내 용	시 기	출 전
太宰府, 使가 고려에 파견	『釋論通玄鈔』· 『同贊玄疏』	숙종 10년(1105)	『東史五代記』
日本國	柑子を 진상	예종 11년(1116)	『高麗史』
日本 都綱 黃仲文 등 21인	없음	의종 1년(1147)	『高麗史』
日本國 對馬島 官人	對馬島官인이 동남도부서에 첩을 보냄	의종 1년(1147)	『李文鑠墓誌銘』
高麗商人	日本の 陣定	의종 13년(1159)	『百鍊抄』
銅採進房·貢銀採丁이 김해부에 금고됨(대마도의 상인)	없음	의종 14년(1160)	『百鍊抄』

70) 田村洋幸, <왜구의 초기형태> 『중세일조무역의 연구』, 1967에서 11세기 말以後에 당분간 고려측의 자료에 일본상선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12·13세기 日·麗간의 심한 경제적 발전의 격차 때문에, 고려 정부가 스스로의 경제적 기반에 위기를 느끼고, 무역을 두절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三浦圭一, <10세기~13세기의 동아시아와 일본> 『강좌일본사(2)』, 1970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고립정책을 취한 것이 아니고, 日·宋무역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71) 李頌, <院政期の日本·高麗交流に關する一考察> 『앞의 책』에서는 요나 여진족 등의 고려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긴장이 증대되면서 변경인 금주의 동남도부서를 장군으로 하는 교류로 한정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72) 田島公, <高麗との關係> 『古文書の語る日本史』, 1991, 288~296쪽의 <平安時代を中心として日本との交渉·交流>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위의 <표-5>를 통해 볼 때 12세기에 대일관계 속에서 첩과 함께 고려와 일본의 상인들은 계속적인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1세기 말기 일본 선박의 나포이후 대일관계가 경색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특히 이전 시기에 잘 보이지 않은 고려의 상인이 일본의 陣定을 행하는 사례는 고려의 상인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의 대일관계는 4시기로 나누어 왜구가 등장하기 이전인 3시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기인 10세기는 특히 고려가 사신을 집중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지만 일본에서 고려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과 폐쇄적인 정책으로 대일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기인 11세기 초에 여진의 도이적이 일본 침략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새롭게 전개되었다. 양국은 상대국의 표류민을 돌려 보내거나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상인들은 팔관회적 질서아래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의 관계는 11세기말 연평도 순검군에 의해 일본인이 타고 있던 선박이 나포됨으로써 경색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대일관계는 지속되어 상인의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Ⅲ. 대외교류의 발달과 부산

앞 절에서 대외관계는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과는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지만 10·11세기에 이르러 개선되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12세기에 그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고려는 송·일본과 대외관계를 전개하는 가운데, 교류의 형태인 무역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부

산지역이 어떻게 대외교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의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대외무역은 이미 통일신라시대에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신라 하대에는 공무역보다 사무역이 더 발달하였다.⁷³⁾ 그러한 양상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졌다고는 할 수 없어도, 고려전기의 대외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앞의 <표-1·3·4·5>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대외무역은 공무역과 사무역의 형태로 양분할 수 있다.⁷⁴⁾ 먼저 고려의 공무역은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고려와 송의 공무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가>

- A) 方 遣告奏使御事工部侍郎尹證古以金線織成龍鳳鞍并綉龍鳳鞍幪 各二幅 細馬二匹 散馬二十四來貢 證古還 賜詢詔書七通并衣帶銀彩鞍勒馬等(『宋史』권487, 外國3 高麗 大中祥符 7年條)
- B) 遣王舜封挾醫往診治 徽又使柳洪來謝 海中遇風 失所貢物 … 前此貢物至 輒下有司估直 償以萬緡 至是命勿復估 以萬緡爲定數(『宋史』

73) 日野開三郎,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16, 17, 19, 20, 1960~1961; 全基雄, <나말여초의 對日關係史 研究> 『韓國民族文化』9, 1997; 朴承範, <앞의 논문>.

74) 고려전기 무역의 형식에 대해서는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무역은 중세 동아시아의 사대교린 질서에 따라 朝貢과 回賜 형식을 통한 것 and 사신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사무역은 개별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본래의 것, 공무역에 끼어 들어 중세 국가의 공인 밑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 국가의 규범을 무시하고 비법적으로 진행되는 밀무역인 것 등으로 나누고 있다. 고려전기는 공무역이 중심이 되고, 상인간의 사무역과 밀무역은 부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다(홍희우, 『조선상업사』, 1989), 고려시대 무역을 조공무역과 민간무역(호시)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金庠基, <麗宋貿易小考> 『東方文化交流史論考』, 을유문화사, 1984). 따라서 고려시대의 대외무역은 공무역=조공무역, 사무역=민간무역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권487, 外國3 高麗 元豐 2年條)

- C) 宋商黃文景等 來獻土物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國家結好北朝 邊無警急 民樂其生 以此保邦 上策也 (『高麗史』 권8, 文宗 12年 8月 乙巳條)

자료 A)는 현종 5년(1014, 대중 상부 7년)에 告奏使로 御事·工部侍郎 尹證을 송에 파견하여 금실로 짜서 만든 龍鳳 鞍幪 등의 여러 물건을 바치자 송에서는 衣帶·銀彩·鞍勒馬 등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자료 B)는 문종 33년(1079, 원풍 2) 고려의 사신 유홍이 바다에서 공물을 분실하였다는 것과 함께 이전에는 공물이 올 때마다 유사가 그 값을 정하여 萬縑으로 보상하였는데, 이때부터 공물 값을 정하지 말고 만점을 정수로 삼도록 하라는 것이다. 자료 C)는 문종이 배를 만들어 송과 통교하려 하자 내사문하성에서 거란을 고려하여 통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위의 자료를 살펴볼 때 고려와 송의 공무역은 고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朝貢하면 송에서 回賜하는 형식 즉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조공품에 대해서는 문종 33년부터 가격을 정하여 萬縑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조공이 물물의 단순 교환이라기보다는 물물의 가치교환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와 송의 공무역은 소규모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문종 32년(1078)에 송의 安燾와 陳睦이 고려에 왔을 때의 國信物을 보면 100여 가지가 넘는 물종에 그 수량은 6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였고,⁷⁵⁾ 역시 고려에서 보낸 국신물은 품목이 30여종 넘고 金花 銀器는 2千兩 정도의 대규모인 경우도 있었다.⁷⁶⁾ 따라서 고려와 송의 공무역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물품이 교역되면서 국내의 상공업발달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75) 『高麗史』 권9, 文宗 32年 6月 丁卯條.

76) 『高麗史』 권9, 文宗 34年 7月 癸亥條.

둘째, 고려와 일본의 공무역에 대해서 대해서는 다음의 두 자료가 주목된다.

<나>

- A) 高麗國交易使藏人所出納國雅相具貨物參入 其中彼國馬一疋 葦毛 似本朝馱馬 不可爲貢貝賒(『日本紀略』後篇6, 天延 2年 閏10月 30日)
 B) 商人往反高麗國 古今之例也(『朝野群載』承曆 4年)⁷⁷⁾

자료 A)는 천연 2년, 즉 광종 25년(974) 高麗國交易使 藏人所出納인 國雅가 高麗馬·葦毛 등의 貨物을 가지고 중앙정부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헌 자료에 고려 교역사가 말·위모 등의 물화를 가지고 중앙정부로 돌아왔다는 것은 교역사가 고려에서 교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고려의 사신이나 상인들이 일본의 태재부에 가져온 물건을 구매한 것이다.⁷⁸⁾ 그렇지만 고려의 사신·상인이 직접 물건을 일본으로 가져온 것을 일본의 중앙정부에서 구매하였다는 것을 고려와 일본간의 무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자료 B)는 일본의 문헌 자료에 상인이 고려국을 왕래하는 것은 고금의 상례이다라고 하고 있다. 승력 4년은 문종 34년(1090)이다. ‘상인의 왕래가 고금의 상례이다’라는 것은 물론 앞의 <표-4>에서 처럼 11세기에 많은 상인의 왕래가 이루어진 점을 통해 문종대를 한정할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본상인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문종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그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말한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고려시대 양국의 무역은 앞의 <표-4·5>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히 오래되었고, 공무역이 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고려시대 공무역인 대일무역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아주 다양하다.⁷⁹⁾ 것인가에 대

77) 靑山公亮, 『앞의 책』, 16쪽에서 재인용.

78) 森克己, <앞의 논문>, 1966.

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다>

A) 高麗國金州防禦使 牒是印也 日本國對馬嶋

當使准越, 今年上月十有四日

貴國使介明賴等四十人 乘船三艘 來泊于州南浦 使譯語問其所以來者 號稱進奉 兼獻文牒 牒道其文其爲擾雜 其語乎過勿恭 非進奉之禮也 大抵兩國相通文牒 必指於某國其州 例有恒矣 往年秋八月恒平等十一人所齋來文牒 徒以讒諛之事 直指牒京朝禮賓省 其可以任意而交受 平具 事呻報朝庭 朝廷之議不上於一 而使之遣還金□此一字消消不見齋來 此亦失禮之甚矣 當券廉察使更傳報于朝廷 朝廷共不許其交接 使之解纜發遣故所 齋來文牒 及進奉萬物率皆還給 以送其數目錄于後想 宜知悉右 事須牒

泰和六年二月 日 牒

官 ○直 ○非 ○二

牒後還送 進奉物目 圓鮑貳仟帖 黑蛇貳仟帖 鹿皮參拾枚 原(『平戶記』 권13, 建永 元年 1月 14日)

B) 遣大官署丞洪汙·詹事府錄事郭王府等 如日本國 請禁賊 牒曰 自兩國交通以來 歲常進奉一度 船不過二艘 設有他船枉憑他事 濫擾我沿海村里 嚴加徵禁 以爲約定 越今年二月二十日 貴國船一艘無故來入我境內熊神縣界勿島 所泊我國貢船 所載多船穀米并一百二十石 紬布并四十三匹 將去(『高麗史』 권25, 元宗 4年 4月 甲寅)

79) 靑山公亮, 『앞의 책』, 1965에서 고려시대 양국의 관계가 소원하였고, 그러한 관계사에 입각하여 私的通交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中村榮孝, 『앞의 책』, 1965에서는 양국간의 무역을 私貿易 또는 私獻貿易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日·宋貿易, 麗·日貿易史 등에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森克己도 일본상인이 고려국왕에게 일본의 특산품을 헌납하고, 고려왕이 회사하는 史獻貿易이라는 형태가 원정기, 겸장기에도 시행되었다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앞의 논문>, 1959). 반면 한국에서의 연구는 일본의 연구경향과는 달리 자료에 나타나는 進奉貿易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나중우, <고려전기의 조일관계> 『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 1996), 김동철도 러일무역의 진봉무역(進獻下賜)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상업과 화폐> 『한국사』 14, 1992). 한편 李頌은 진봉무역의 실시시기를 의종 23년(1169)에서 원종 7년(1266) 사이에 전개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中世前期의 日本と高麗-進奉關係を中心として-> 『倭寇と日麗關係史』, 1999).

자료 A)는 建永 元年, 즉 熙宗 2年(1206) 1月 14日에 대마도 사자 明賴 등 40인이 金州 南浦에 와서 圓鮑 2000帖, 黑鮑 2000果, 鹿皮 30매를 “進奉”하려고 하였지만, 금주 방어사가 대마도에 첩을 보내어 명뢰가 가져온 첩이 예에 어긋남을 책망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고려에 대한 진봉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마도에서 보낸 진봉무역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자료 B)는 고려의 관인을 일본에 보내어 진봉무역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양국이 통교한 이래로 해마다 상례로 진봉하는데, 한번에 2척이라는 것이다. 위의 두 자료를 통해 볼 때 진봉무역은 13세기 이전, 즉 양국이 통교한 시점부터 이루어져왔고, 그 무역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대일무역은 진봉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져왔고, 지방관과 관리 등이 진봉무역에 대한 시책을 전달한 것으로 볼 때 공적인 형태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가 모두 고려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진봉무역에 대한 실체를 의심할 수 있지만 당시 일본이 진봉무역을 부정하였다면 전례에 비추어 고려에서 보낸 첩을 두고, 첩에 사용된 진봉무역이란 용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이 진봉무역의 실체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문헌 자료에 고려에서 보낸 진봉무역에 대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봉무역이 당시의 대일무역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진봉무역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앞의 자료인 『고려사』에서 진봉무역은 양국이 통교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11세기 후반에 성행하였던 일본상인의 사헌무역에서 구하는 견해,⁸⁰⁾ 仁安 3년(1168) 太宰大貳로 부임한 平賴盛이 平氏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일송무역의 안전한

80) 森克己, <鎌倉時代の日麗交渉> 『앞의 책』, 1975.

항로확보와 대고려무역을 위해 실시하였다고 파악하는 견해,⁸¹⁾ 그리고 13세기 왜구의 등장과 관련하여 파악하기도 한다.⁸²⁾ 그러나 진봉무역의 시점에 대해서는 앞의 『고려사』의 기록을 중시하여야 한다. 실제 앞의 <표-4·5>를 보면 일본의 지방정부의 사신들은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왔기 때문에 이는 『고려사』의 진봉무역의 원칙에 부합된다. 양국의 통교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는 없다. 다만 양국에서 사신을 파견하였거나 아니면 사신에 의해 공식적으로 첩이 전달되는 시점을 양국의 통교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10세기 이전에는 고려에서 일본에 첩을 보냈지만 일본은 첩은 후에 곧바로 전쟁준비를 하는 등의 불안한 양국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⁸³⁾ 따라서 10세기에는 양국의 통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양국의 통교는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된 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양국의 긴장관계는 11세기 초반 여진의 刀伊賊에 포로가 된 일본인을 구출하여 송환한 이후에 완화되었고, 이후 사신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로 볼 때 양국의 외교관계는 11세기 초에서 문종 10년 일본국사가 금주의 객관에 온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진봉무역은 11세기 초·중반 무렵부터 정착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⁸⁴⁾

진봉무역의 물품은 일본에서는 螺細·鏡匣·櫛箱·硯箱·書案·畫屏風·日本扇·香爐·弓箭·水銀·眞珠·硫黃·螺甲·刀劍·牛馬·海藻·法螺·彩材·龍頭頭器·甲冑·劍·長劍·柑橘·柑子·彩緞·胡

81) 李頌, <中世前期の日本と高麗> 『앞의 책』.

82) 川添昭二, <鎌倉時代の 對外關係와 文物의 移入> 『日本歷史(岩波講座)』 6, 1975에서는 진봉을 高麗와 武藤氏 간의 관계로 설정하여, 개시의 시점을 1227년 또는 1240년으로 파악하고 왜구의 방지와 고려측의 상업의 미발달에 의한 무역제한책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83) 『小右記』, 長德 3年 5月條.

84) 진봉무역의 주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려와 대마도, 고려와 대마도·태재부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검토하겠다.

珣·丹木·沈香·蘇木·犀角 등을 보냈는데, 이는 원료품, 미술공예품, 무기류, 식물류, 가축, 직물 등과 남방의 산물까지 포함하여 방물·토물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는 人蔘·麝香·紅花·虎豹皮·綿紬·麻布·大藏經·經典·米豆·華綿·大綾·中綾 등이 주요한 품목으로 교환되었다.⁸⁵⁾ 하지만 이러한 진봉무역도 왜구의 등장과 함께 몽고의 고려 침략이후에 단절됨으로써 고려와 일본간의 공무역은 단절되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宋錢과 함께 고려전이 출토되고 있는데, 출토지역은 북쪽의 북해도에서 남쪽의 구주지역까지 거의 일본 전역이다. 고려의 동전은 동국통보·동국중보·해동통보·해동중보·삼한통보·삼한중보 등의 6종류로 고려 전기에 발행된 것인데, 이러한 화폐가 일본에 건너갔다는 것은 고려의 대일교역의 전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다.⁸⁶⁾

다음으로 사무역은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 사이에도 일정하게 성행하였다. 사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상이나 자료 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앞의 <표-1·3·4·5>에 나타나는 것처럼 송인·송상·도강·국인·상인·상객·승속 등이 고려에 와서 토물·방물을 바친 경우는 사무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공·진봉무역 때 이루어진 경우는 공무역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무역은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상인간의 무역과 밀무역 등을 전형으로 한다.

전자는 앞의 <표-1·3·4·5>의 사례를 통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송상·일본상인이 고려에 왔다는 사실은 『고려도경』·『고려사』 등의 자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⁸⁷⁾ 반하여

85) 李鉉淙,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 『東洋學』7, 1977.

86) 李正守, <앞의 논문>.

87) 『高麗圖經』권23, 土産條에 ‘고려는 양점이 서둘러 비단실과 옷감은 모두 山東·閩浙에서 온 상인에게 부탁하여 사들인다’고 하거나 『高麗史』권129, 崔忠憲傳 附 崔怡傳에 ‘송상에게 포목을 주고 물소 뿔을 사오게 하였다’는 기록은 송상이 고려인의 물품을 조달하는 창구역할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 상인의 모습들은 『송사』나 송대의 자료에⁸⁸⁾ 부분적으로 기록된 것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도현의 주민들이 물품의 매매를 위해 탁라도(탐라)에서 상업활동을 하거나,⁸⁹⁾ 진라도 상인들이 자기와 도미를 팔기 위해 탐라에 왔다거나,⁹⁰⁾ 탐라와 영암에서 큰 배를 건조하려고 하였다는⁹¹⁾ 것은 국내의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여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에도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송사』 남송 경원 5년(1199)에 고려와 일본의 상인들에게 동전의 교환을 금한다거나,⁹²⁾ 고려와 일본의 商船이 명주에 도착하였다거나,⁹³⁾ 일본의 승려 成尋이 중국의 항주부근의 바다에서 고려상인 만났다는⁹⁴⁾ 등의 자료는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고려상인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상인에 의한 사무역은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후자인 밀무역은 조공(사행)무역 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순수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무역을 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고려측의 자료에 의하면 ‘예방하는 사신들에게 그 무역을 검하게 하고 여타의 다른 매매는 일체 금지한다’고 하거나,⁹⁵⁾ 중국측의 자료에 의하면 ‘고려인이 중국말을 모르니 몇몇 재물을 탐하는 이들이 비밀리에 고려 사신과 매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지를 감시하고 금지하라’는⁹⁶⁾ 점을 등을 통해 볼 때 사신들에 의한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와 일본의 문헌자료에는 표류인이 양국으로 돌려

88) 송대의 고려관련 자료는 다음의 자료집이 참고된다(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 출판부, 2001).

89) 『高麗史』 권13,睿宗 8年 6月 庚戌條.

90) 『益齋亂藁』 권4, 小樂府.

91) 『高麗史』 권8, 文宗 12年 8月 乙巳條.

92) 『宋史』 권37, 本紀 慶元 5年 7月 甲寅條.

93) 『宋會要輯稿』 권86, 職官44 提舉市舶司 乾道 3年 4月 3日條.

94) 『參天台五臺山記』 권1, 延久 4年 4月 23日條.

95) 『高麗史』 권93, 崔承老傳.

96) 『續資治通鑑長編』 권247, 熙寧 6年 10月 壬子條.

보내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⁹⁷⁾ 표류인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진다는 것은 이들은 단순한 표류민으로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상행위에 대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정상적인 상업행위가 아닌 즉 밀무역을 전개하다 표류하였거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앞에서 언급한 고려의 순검군에 의해 나포된 선박도 밀(사)무역을 주도했던 상선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려시대 대송·대일의 사무역도 성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외교류의 발달 속에서 고려시대 부산지역은 어떻게 대외무역에 참여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신라말기부터 청해진의 張保臯, 예성강의 王建家, 진주의 王逢規, 김해의 金仁匡·蘇忠子·蘇律熙 등은 각 지역에서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따라서 신라말기에는 이러한 세력 외에도 각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세력이 대외무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경향성은 고려로 계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부산지역에는 어떠한 지배세력이 대외무역에 종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진도현민 漢白 등 8명이 탁라도(탐라)에 물품을 매매하기 위해 풍랑을 만나 송의 명주로 표류하였다거나,⁹⁸⁾ 전라도의 상인들이 瓷器와 稻米를 팔기 위해 제주도에 왔다는⁹⁹⁾ 자료가 주목된다. 전자는 고려전기의 내용이고, 후자는 고려후기의 내용 점에서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지만 지역의 상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진도현과 전라도 지역의 상인들이 지역과 지역을 원거리 이동하면서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은¹⁰⁰⁾ 고려시대에도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존재하였고, 그 활동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역의 상인의 존재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珍島縣民 漢

97) 田島公, <앞의 논문>; 山内晋次, <앞의 논문>을 참조.

98) 『高麗史』 권13, 睿宗 8年 6月 庚戌條.

99) 『益齋亂藁』 권4, 小樂府.

100) 金東哲,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 『釜大史學』 9, 1985.

白의 활동이 주목된다. 한백은 어떤 계층일까. 漢白의 漢은 성씨인지 아니면 漢白 자체가 이름인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 해진군 성씨조에 의하면 ‘진도의 성이 4인데, 任·金·李·韓이다.’¹⁰¹⁾라고 하여 韓이 토성임을 알 수 있다. 한자 漢과 韓은 뜻은 다르지만 음이 같으므로 漢은 韓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漢(韓)白은 진도현의 토성세력으로 유추한다.¹⁰²⁾ 따라서 지역의 상인은 각 지역의 토성, 즉 토호세력을 중심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상인은 지역의 토성세력을 중심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東萊縣의 토성으로 ‘鄭·宋·玉·丁·曹’ 등이 기록되어 있고, 東平縣의 토성으로는 ‘李’가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⁰³⁾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인물조에는 ‘鄭文道는 음에 속하였던 향리였는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무덤은 현의 서쪽 7리에 있다’고¹⁰⁴⁾ 라고 하여 고려시대 부산(동래)지역의 향리 가문인 鄭文道도 대표적인 토성인 鄭氏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상인은 토성인 ‘鄭’를 비롯한 ‘宋·玉·丁·曹·李’ 등의 성씨를 가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지역의 토성세력이 상업활동을 전개하였을 가능성은 각 지역의 고려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동전과 부장품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고려시대의 고분에 대한 발굴 작업이 확산되면서 충주의 단월동·천안 남산리·화성군 둔대리·안산시 부곡동·과주시 서곡리 등의 여러 묘지에서는 다량의 宋錢이 출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⁵⁾ 이와 같은 송전은 지역의 토성층, 즉 향

101) 『世宗實錄地理志』 羅州牧, 海珍群.

102) 李貞信, <고려시대의 상인> 『國史館論叢』 59, 1994, 115쪽에서 漢白은 진도의 토성이므로 지방토호세력으로 유추하고 있다.

103) 『慶尙道地理志』 慶州道 東萊縣 土姓條.

10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東萊縣 人物條.

105)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송전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정용범, <고려시대 중국전문의 유통과 주전책-성종·숙종 연간을 심으로-> 『지역과 역사』 4, 1997).

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지역과 지역간의 원거리 상업활동이나 혹은 개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외무역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소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송전이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부산시 북구 덕천동 구포왜성의 주변에서는 삼한·조선시대의 분묘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분묘인 18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분묘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상감기법을 한 청자 대접을 비롯하여 油瓶, 馬上杯, 盒, 접시류 등의 자기류와 토기류, 圓形 및 方形의 銅鏡, 銅錢, 동곳, 대금구, 청동제 가위, 동도자, 수저, 반지 등의 금속제품과 구슬류 등이었다.¹⁰⁶⁾ 부산지역의 고려시대 분묘에서 청자가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청자를 생산하였다는 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청자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교역품이다. 하지만 고려시대 청자는 일반 양인계층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다. 이러한 청자를 소유하였던 계층은 부산지역의 토호세력일 가능성이 많다. 실제 분묘에서는 청자뿐만 아니라 청동제품도 함께 부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토성들인 지배세력은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개경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전개되는 대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상인층은 낙동강 등을 통해 지역과 지역간의 상업활동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도 축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 강과 포구는 상인들의 원·근거리 상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길목이다.¹⁰⁷⁾ 낙동강도 상인들의 상업활동의 근거지였음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김해도호부 산천조에 의하면 ‘都要渚는 부의 동쪽 30리 지점의 강기슭에 200여호 가까이 되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집들이 밀집되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울타리들이 서로 잇닿아 있으며 주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로지 배일을 일삼는다. 바다에 들어가서

106) 東亞大學校 博物館, 『釜山 德川洞遺蹟 發掘調査概要』, 2002.

107) 홍희유, 『조선상업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생선을 잡으면 상류의 여러 고을에 판매하여 재산을 축적한다'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⁰⁸⁾ 도요저¹⁰⁹⁾의 민들은 잡은 고기를 낙동강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인근인 울산에서도 땅이 기름지고 물고기와 고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성 중에 앞서서 부자가 된 자가 많다고 하고 있다.¹¹⁰⁾ 비슷한 지역적 기반을 가진 부산지역의 민들도 해안의 고기를 잡아, 이를 낙동강을 통한 상업활동에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고려시대 강을 이용한 상업활동은 보편적이었고, 낙동강의 동쪽에 있는 부산지역의 상인들도 김해 도요저의 민들처럼 낙동강을 이용한 상업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¹¹¹⁾

고려시대는 강과 함께 각 지역의 漕運이 결집되는 곳인 조창과 포구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는 13개의 조창이 존재하였는데, 덕홍창과 홍원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가에 위치하고 있다.¹¹²⁾ 부산의 인근에는 석두창(현 마산)과 통양창(사천)이 존재하고 있다. 원거리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던 상인들의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부산지역의 상인들도 조운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부산에서 생산되었던 물건인 어류 등을 주요한 품목으로 취급하였을 것이다.¹¹³⁾ 따라서 부산지역의 상인은 해로인 조운로를 통해 중앙의 개경까지 진출하여 宋商과 교역하였을 가능성도 많다.

10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金海都護府 山川條.

109) 도요저의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로 낙동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11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2, 蔚山郡 古蹟 古邑城條.

111) 부산지역의 상인층은 상업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큰 사찰의 하나인 만덕동 기비사의 중요한 단월로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112) 『高麗史』 권79, 食貨2 漕運條.

113) 최근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부산의 덕천동 분묘에서 발굴된 청자는 이 지역의 토호세력의 부를 추정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동아대 박물관, <앞의 자료집>, 2002).

부산지역의 상인은 낙동강과 조운로 등을 통해 지역과 지역 간의 상업활동 전개한 반면에 앞의 진도현민들이 표류하여 중국 명주에 도착한 경우처럼 직접 중국 보다 가까운 일본 지역과 직접 무역을 하거나 고려에 온 일본의 상인들과 직접 교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지역의 상인들은 고려로 오는 일본의 상인들이 모두 금주의 객관을 중요 거점으로 삼았으므로 일본 상인들과 직접적인 대외교역을 전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금주의 객관은 언제 어디에 설치되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금주의 객관은 ‘日本國使 正上位權隸·朝臣 滕原賴忠 등의 30여인이 금주에 와서 머물렀다’고¹¹⁴⁾ 기록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문종 10년(1056)에는 이미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사절인 對馬島官이 파견한 두령 明任이 표류한 고려인과 함께 金州에 처음 도착한 것은 문종 3년(1049)이고,¹¹⁵⁾ 2년 후인 문종 5년에는 금주에서 고려의 牒狀이 일본에 보내졌다.¹¹⁶⁾ 금주에 대마도관이 보낸 사신이 도착하고 금주에서 첩장이 보내진 것은 대일교류의 창구로 11세기 초중반에 금주객관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금주의 객관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문종 3년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도 대일교류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금주로 하였다. 일본은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기구와 지역으로 太宰府의 외항인 博多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송은 명주를 고려와 일본과의 무역항으로 삼았다. 금주의 객관에 대한 관리는 금주의 지방관보다는 東南都府署에 의해 이루어졌는데,¹¹⁷⁾ 금석문 자료에 의하면 ‘일본국 대마도 관인이 변방의 일로 동남도부서에 공문을 보내 왔다. 도부서는 감히 결정하지 못하고, 驛馬를 보내 조정에 소식을 알리니, 양부에

114) 『高麗史』 권7, 文宗 10年 10月 己酉條.

115) 『高麗史』 권7, 文宗 3年 11月 戊午條.

116) 『百鍊抄』 권4, 永承 3年 7月 10日條.

117) 金南奎, <高麗都府署考> 『史叢』 11, 1966 ; 金好鍾, <東南都府署의 設置와 그 機能-金州 本營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20, 1999.

서 의논한 후 상서도성첩으로 회시하려고 하였다.李文鐸이 그것을 듣고 승제 李公升에게 말하기를 그 대마도 관인은 邊吏이다. 이제 상서도성첩으로 회시하는 것을 사태를 분별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도부서가 공문을 □回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¹¹⁸⁾ 자료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동남도부서의 금주 본영은 원래 태조 22년 경주본영을 두었다가 문종 32년(1079)에 금주로 이동되면서 설치되어졌다가 명종 20년(1190)에 혁파되었고, 이후 신종 5년(1202)에 다시 설치되면서 유지되었다.¹¹⁹⁾ 이후 금주본영은 3차에 걸친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였지만,¹²⁰⁾ 대일교역이 활발하던 11·12세기에 금주에 설치되어 당시 활발하였던 대일교역을 관장하였다.

고려시대 대일관계의 중심이었던 金州의 客館은 현재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라>

- A) 明月山 在府南四十里 山下仇良村 有見助巖水站 以接倭使 山頂石罅有穴成門 高廣皆五尺許 深七尺許(『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金海都護府 山川條)
- B) 主勿淵津 在府北四十里 漆原縣買浦下流 岸上設小公館 以待倭使之乘船往來(『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昌原都護府 山川條)

자료 A)에서는 김해부의 남쪽 40리 지점에 있는 명월산 아래 仇良村에 見助巖 水站이 있어서 倭의 사신을 접대하고 산의 꼭대기 돌 틈에 구멍이 있어 문이 되었는데 높이와 넓이가 모두 5척 정도이고 깊이는 7척 정도라고 하고 있다. 자료 B)는 주물연진은 칠원

118) 『高麗墓誌集成』, 李文鐸墓誌銘.

119) 『慶尙道地理志』, 慶州道 金海都護府.

120) 『慶尙道地理志』, 慶州道 金海都護府.

현 매포의 하류에 있는데, 작은 공관을 설치하여 왕래하는 왜의 사신을 접대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자료를 살펴볼 때 낙동강 연안에 왜의 사신을 접대하는 객관이 2곳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금주의 객관은 규모가 크다면 칠원현 매포의 객관은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칠원현 매포에 위치한 객관은 왜의 사신이 낙동강의 수로를 통해 개경으로 갈 경우에 사용되었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에 금주의 객관은 조선초기 김해부의 남쪽 구랑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에는 九郎마을이란 자연마을이 있다. 구랑촌과 구랑의 지명은 한자의 뜻과 음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녹산동에는 九郎마을의 아래 지사천변에는 수점마을이란 명칭이 있고, 그것에는 수참교란 다리가 있다. 수점마을은 수참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 구랑촌에는 水站이 있었는데, 지사천의 중간지점 쯤의 조그마한 마을로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1920년대만 하여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 것은¹²¹⁾ 상당히 주목된다. 필자가 현지를 답사를 하였지만 지금은 지사천의 주변 지역을 매립함으로써 지형의 구조가 변형되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의 구랑동은 금주 객관이 위치하였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¹²²⁾

금주의 객관에는 항상 일본의 사신과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물론 이들 일본의 상인들은 개경에 상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곳에서 상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상인은 이러한 지역적 이점을 이용하여 금주객관에서 일본상인과 직접 대일교역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12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강서구편-』 제5권, 1999.

122) 小田省吾, <李氏朝鮮時代に於ける倭館の變遷> 『京城法文學會』 2, 1929에서 도 필자와 동일한 지역에 금주객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고려시대 대외무역은 공무역과 사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무역은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그 무역의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전자는 고려가 조공을 하는 반면에 후자는 일본이 진봉하였지만 그 방식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사무역도 발달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인들의 왕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이 발달함으로써 부산지역의 토호세력인 상인들도 이러한 대외무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의 토호세력인 상인들은 상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경에 오는 송상과 교역을 한 반면에 금주에 오는 일본 상인들과 교역을 전개하였다. 특히 부산지역의 상인층은 대송교역보다는 지역적 이점을 가진 대일교역을 중점으로 전개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가 대외관계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의 대송관계는 몇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려와 송의 대외관계는 4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려의 대송관계는 4시기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대외관계는 서로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을 관철하기 일정한 노력을 견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고려는 송에 대해 경제·문화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양국의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였고, 송도 그러한 목적 하에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점이 엿보인다. 이처럼 양국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양국

의 상인들이 교역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고려의 대일관계는 몇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려의 대일관계를 4시기로 나누었지만 3시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1기인 10세기는 특히 고려에서 사신을 집중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지만 일본에서 고려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1세기 여진의 도이적이 일본 침략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새롭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의 사신이 활발하게 파견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상인은 팔관회적 질서아래 상업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12세기에 지속되어 상인에 의한 상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셋째, 대외교류의 발달 속에서 부산지역에 어떻게 참여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대외무역은 공무역과 사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무역은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그 무역의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전자는 고려가 조공을 하는 반면에 후자는 일본이 진봉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사무역도 발달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이 발달함으로써 부산지역의 상인들도 이러한 대외무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의 토호세력인 토성층들은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경에 오는 송상과 교역을 한 반면에 금주에 오는 일본 상인들과도 교역을 전개하였다. 특히 부산지역의 상인층은 대송교역보다는 지역적 이점을 가진 대일교역을 중점으로 전개하였다.